



[2915호] 2026년 2월 22일 **사순 제1주일**



작품 : 이경희 벨라벳다(양정성당)

입 당 송 시편 91(90), 15.16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 1 독 서 창세기 2,7-9; 3,1-7

<사람의 창조와 원조들의 죄>

화 답 송 시편 51(50), 3-4.5-6.7.12-13.14와 17(◎ 3.7 참조)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후렴)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1.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2.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3.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4.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 2 독 서 로마서 5,12-19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총만히 내렸습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마태오 4,1-11

<예수님께서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영성체 송 마태 4,4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유혹”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꺾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끈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 좋지 않은 길을 택하게 만들려는 “유혹”이 사순 제1주일 미사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입니다. 사십 일의 단식을 통해 하느님과 하나 되는 체험 속에서 하느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 예수님께 이 유혹은 하느님에게로 향한 시선을 돌려 다른 쪽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예수님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라는 말씀으로 거부하시며, 하느님에게로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속해서 걸어가려 하십니다.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고 길을 제대로 잡아 걸어가 시려는 예수님께 두 번째 유혹이 다가옵니다. 바로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장면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내내 계속해서 받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니 세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고난의 쓴 잔을 치워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으며, 그 마음으로 하느님에게로 다시 시선을 맞추고 계속해서 걸어가려 하십니다.

하지만 유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예

수님은 하느님과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세 번째 유혹을 받으십니다. 하느님과 재물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예와 재물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하느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마태 4,10)라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다잡으시며, 하느님에게로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사순 제1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난 길을 사십 일 동안 걸어 하느님에게로 다가가고자 하는 다짐을 합니다.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친다면 그 순간 우리 삶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찬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둔다면, 이 광야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 시기의 여정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부활의 길로 이어지는 여정이길 바라며, 유혹을 이기신 주님의 단호함과 굳건함을 청합니다. 아멘.

김두진 가브리엘 신부
메리놀병원 기획처장



작품
연필



예수님께서는 거칠고 삭막한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홀로 단식하시며 묵상하십니다. 세속의 잣대로는 가장 나약하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일 때, 악마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뿌리치지 못할 유혹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작품 : 이경희 벨라뎃다 (양정성당, 그림책작가 '그림봄')

어떻게 살 것인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읽어본 책의 제목 같기도 하지만 꼭 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단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 사람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생기고 나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자문해 보게 마련이다. 물론 이내 정답을 얻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생 아예 정답을 얻지 못하거나 얻었다 하더라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4년간 교수로 봉직했던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4년 남기고 스스로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대학에 오기 전의 직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주가가 초고공으로 비행하고 있는 모 대기업의 반도체 회사였다. 기업에서 대학으로 직장을 옮기는 일반적인 이유는 대학의 정년이 기업보다 길어서인데, 막상 이렇게 정년도 되기 전에 퇴직할 거였다면 그냥 기업에 눌러앉아 월급이라도 많이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나았을 거라는 세속적인 생각도 아주 짧게 해 보았다. 그러나! 역시 대학에서 학생들과 어울려 보낸 34년은 나에게 하느님의 은총이자 영광의 시간이었음이 틀림없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다소 인색한 듯하다. 그보다는 주로 고수익과 명예가 동시에 주어지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

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의 핵심은 직업 자체보다는 삶에 대한 자세가 아닐까? 예를 들어, 해야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잘 사는 삶에 가까울 것이다. 평소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맞고, 그렇다면 지난 34년간의 삶은 비교적 괜찮은 삶이었다고 나를 자부하면서, 이제부터는 하고 싶었으나 그간 못했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분발하자는 각오도 다져 본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공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심을 생각해 본다.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고된 길을 걸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수없이 많은 강론과 성경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들었기에 머리로는 이해한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세례를 받은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처럼 살 자신이 없음을 고백한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을 묵상에 할애해야 하는 사순 시기를 보내며 지금까지의 삶 중 잘못된 것은 속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기회를 함께 가져보면 좋겠다.

원성현 스테파노

부곡성당 · 부산가톨릭대학교 미래설계융합학부 석좌교수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울산	녹산(서부산)	마산	오늘의 강론
		FM 101.1MHz	FM 93.7MHz	FM 101.5MHz	FM 101.7MHz	월~토 06:50 (재) 16:50, 23:50 2.23(월)~2.28(토) 김두진 신부(메리놀병원 기획처장)
다정다감 다섯시 2.23(월) 17:00~18:00 진행: 조예나 아나운서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부산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버스 출연: 김세훈 리포터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2.27(금) 14:00~16:00 진행: 김다정 아나운서 성가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찬양사도를 만나보는 시간! <찬양해랑> 출연: 파로스 (고운서 마리스텔라, 김도희 소화데레사, 이재성 대건안드레아)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기다리며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 2027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초미의 관심과 만반의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7년 7월 29일(목)부터 8월 8일(일)까지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는 주제 성구로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열립니다. 그중 7월 29일(목)부터 8월 2일(월)까지는 우리 부산교구를 포함한 전국 15개 교구에서 ‘교구대회’를 열고, 8월 3일(화)부터 8월 8일(일)까지는 서울에서 본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50만에서 70만 정도의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며, 우리 부산교구대회에는 7,000명의 청년이 참가할 것입니다. 이미 자매 교구인 일본 히로시마, 필리핀 인판타, 대만 가오슝 교구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교구, 폴란드(2,000명)에서 우리 교구대회 참가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이번 세계청년대회의 절정은 교황 레오 14세께서 방한하시어 8월 8일 주일에 미사를 봉헌하실 것인데, 그 미사에 최대 100만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그러하지만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가톨릭 젊은이들의 대회나 축제가 아닙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우리나라를 찾은 이들이 우리 문화를 경험하고 종교적·사회적·인간적으로 소통하는 세계의 축제입니다. 물론 개최하는 교구에서나 지방 교구에서 만만치 않은 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각 교구에서는 교구별, 지구별, 본당별로 조직을 구성하였고, 우리 교구에서는 WYD 사무국을 신설하여 사무국장 신부를 임명했고, 그 신부님이 전담하여 지구별, 본당별 조직을 구성하는 등 모든 준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며, 예산, 치안, 교통, 의료 등 여러 가지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후보 등을 통해 계속해서 WYD에 대한 현황 소개를 계속하겠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 대회의 개요와 중요한 점을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교구와 교우들의 큰 관심사는 청년들의 ‘홈스테이’입니다. 그 많은 청년들의 숙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이지만, 동시에 세계청년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바로 ‘홈스테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화와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홈스테이가 가능하느냐 하는 물음도 가집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홈스테이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그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도 다른 문화에서의 생활을 기대와 설렘, 약간의 걱정을 안고 올 것입니다. 그들은 ‘귀하고 부담스러운’ 손님이 아니라 ‘순례자’로 옵니다. 4일 동안 잠자리와 아침 식사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같이 기도하고, 부족한 소통이지만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큰 추억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의 세계청년대회 때 홈스테이를 제공한 노부부는 “처음에는 부담감이 컸지만, 막상 같이 지내보니 참으로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홈스테이’에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무사히 끝나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적으로, 또는 봉사자로서, 홈스테이 봉사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성 카를로 아쿠티스 유해 안치식

지난 2월 8일(일) 푸른나무 교육관 2층 경당에서 성 카를로 아쿠티스 유해 안치식이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인터넷의 수호성인’이라고 불리며,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재능을 복음 전파에 활용해 전 세계의 성체 기적 사례를 정리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등 성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삶으로 드러냈다.



‘지구 순회 미사와 성시간’ 중 유해 경배 예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간 일정은 QR코드 참조)

신학생 동계연수



1월 27일(화)~29(목) 경주인성수련원 / 성소국(국장: 최치원 신부) 주관

학교법인 성모학원 산하 고등학교 교목신부 부임지 변경

학교명	기 존	변 경
대양고등학교	김문경 비오	박종민 그레고리오
데레사여자고등학교	-	정지윤 그레고리오
성모여자고등학교	박종민 그레고리오	김문경 비오
지산고등학교	정지윤 그레고리오	안원철 펠릭스

부임일자 : 2026년 3월 1일(일)

오륜대순교자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동완 1,000,000 김도식 300,000 류혜선 200,000 박수영 200,000 이순희 100,000 김미영 100,000 천주교부산교구 10,000
한애지 100,000 이계석 100,000 오창민 50,000 왕관수 30,000

[2월 8일~2월 11일]

합계 : 2,190,000원

누계 : 4,421,423,089원



성지 홍보영상

농협 301-0629-8734-11, 부산 113-2014-1175-03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기부 후 오륜대순교자성지 사무실(051-515-0030)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언어

Adios (아디오스, 하느님께로)

‘Adios’는 보통 앞으로 오랜 시간 못 보거나 다시 보기 힘든 사람과 헤어질 때 나누는 작별인사입니다. 그래서 “안녕.” 또는 “안녕히 가십시오.”로 번역될 수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하느님께로’(A+Dios)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긴 문장을 축약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느님께 당신을 맡깁니다.”, “하느님께 나아가십시오.” 또는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시기를!”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 ‘Ad Deum’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럽 언어에서 비슷한 말이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어의 ‘Adieu’(아듀)가 있습니다.

재의 수요일과 함께 회개의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개의 다른 말로 ‘회두’(回頭, 머리를 돌리다)라는 말도 쓰이는데, 우리 인생 여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성찰해 보고 다시 하느님께로(A Dios) 정향하는 것이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회두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하느님께 돌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은총의 사순 시기 되시기 바랍니다. ¡Adios!

■ 김무종 프란치스코 신부(사회사목국 부국장)

스페인어

교 구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 새사제 미사

· 2.23(월) 10:00 목주기도, 10:30 미사
· 교구청 5층 사랑실 / 문의: 629-8760(성소국)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울산)

- 새사제 미사

· 2.27(금) 13:30 목주기도, 14:00 미사
· 아음성당 / 문의: 629-8760(성소국)

부산가톨릭청년합창단 제3회 정기공연

J. Rheinberger -Stabat Mater Op.138 외
· 2.27(금) 19:30 · 달맞이성당 성전
전석 무료 초대(후원: 농협 301-0377-6438-7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 문의: 629-8784

본 당

대연성당 영어교실

화목반/수금반: 기초반, 중급반, 회화반
10:00~10:50, 11:00~11:50, 12:00~12:50
개강: 3.3(화) / 문의: 010-8501-9250

중앙성당 세실리아성가대 반주자 구함

문의: 246-4284(본당 사무실)

모라성요한성당 지휘자 구함

문의: 316-1009

기관·제 단체·위원회

오순절평화의마을 2월 후원회미사

사하: 2.23(월) 11:00 사하성당
울산: 2.23(월) 11:00 아음성당
문의: 782-0765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 2.27(금) 10:30 / 세계오지선교회 차량지원
· 남천성당 / 문의: 623-4528(사무실)

교구평협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 2.28(토) 출발: 수영장대순교성지(13:00),
온천천입구(14:00), 도착: 오륜대순교자성지
경유: 동래역(15:00)-장전역(16:00)-
오륜대순교자성지(16:30)-파견미사(16:40)
문의: 629-8713(교구평협 사무국, 사목기획실)

부산교구 순교자현양미사

· 2.28(토)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 임시성전
문의: 010-2193-0471(부산교회사연구소)

파티마의세계사도직 2월 피정

· 2.23(월) 09:30 / 강의 및 미사: 강호성 신부
문의: 646-3746, 010-6764-3746

주교님과 함께 하는 2026 사순시기 피정 <파스카 신비와 죽음>

· 3.15(일) 10:00~16:00(주일미사 포함)
· 양산 하늘공원 / 강사: 교구장 손삼석 주교,
김경옥 신부, 최혁 신부
대상: 부산교구 신자 / 선착순 60명
회비: 1만 5천원(점심식사 제공, 교통편은
제공 안함) / 문의: (055)374-8733

ME부산협의회 413차 ME주말

· 3.27(금) 19:00~29(일) 17:30
· 마리아 피정센터 / 대상: 부부(결혼3년
이상, 종교무관), 성직자, 수도자
문의: 010-2569-5670, <http://bsme.or.kr>
참가비: 1부부 35만원(1인당 17만 5천원)

성령쇄신봉사회(영성의 집)

- 젊은이성령기도회(목주기도+찬양미사)
· 2.23(월) 19:30 · 전포성당
- 수요치유기도회와미사
· 2.25(수) 13:00~15:30
- 금요일미사
· 2.27(금) 19:40~22:30 · 가야성당
새사제 김성훈 신부 미사집전과 안수
- 517차교구성령묵상회(젊은이)
· 2.27(금) 16:00~3.1(일) 17:00
문의: (055)382-9465

성령쇄신 봉사회(울산 영성의 집)

- 100단 목주기도 2.23(월) 11:00~15:00 (미사)
- 목요일 밤 미사 2.26(목) 20:00~22:30
문의: (052)244-7014

부산성모병원 제15기 자원봉사자학교

교육: 3.10~6.2 매주 화요일 10:00~12:00
접수: 2.19(목)~3.7(토) / 문의 및 지원서교부
: 자원봉사자실(933-7055), 홈페이지 참고

가톨릭간병인회 완화병동보조인력 모집

완화병동 보조인력(만 63세미만, 자격증소지자)
부산성모병원, 메리놀병원 근무
문의: 933-7042, 010-3572-7045

제44회 부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 2.28(토) 19:30 · 주교좌 중앙성당
J.HAYDN "Nelson Mass"
지휘: 이성훈, 이태영, 윤비연
전석 무료 초대 / 문의: 010-9829-8181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부산가톨릭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 4.15 이태리, 발칸, 메주고리에13일(KE) 610만원
· 5.17 스페인 성모성지순례13일(KE) 610만원
· 6.6 튀르키예, 그리스13일(KE) 605만원
· 6.8 동유럽, 발칸, 메주고리에12일(KE) 595만원
· 6.15 나가사키3일(BX) 120만원
· 6.22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13일(KE) 645만원
문의: 010-3837-6434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성인 예비신자
문의: 519-0490(화~금 13:00~16:00)

아뉴스데이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매주 월요일 음악교육원
지휘: 백선경 / 오디션곡: 자유곡(악보지참)
문의: 010-5614-5996(단장 이영준)

수도회·타 교구·기타

밀양가르멜 수녀원 2월 후원 미사

· 2.24(화) 10:30 (이번달만 4째 화요일)
· 남천성당 / 주례: 박종주 신부
문의: (055)353-6597

영원한도움의성모 노베나피정 (구속주회)

· 2.24(화) 13:30~16:00 · 서면성당
내용: 기도, 강의, 미사, 고해성사
문의: 010-2754-5031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 2.27(금) 14:00~16:00
· 성분도 은혜의집 4층
문의: (02)379-8091, 010-4976-0217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평생후원회 미사

· 2.28(토) 11:00 · 양산 무아의 집
문의: (055)385-5838, 010-3355-4997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성소모임

· 상시 상담가능 · 전화상담후 결정
문의: 010-9199-4995

서울 공예

목주반지 전문, 패션, 예물, 커플링
범일역 12번출구 중앙귀곡속 115호
주일 정상영업, 매주 화요일 휴무
황근영(바울라) 631-5006~7

(덕천)길맥외과의원

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
원장 | 박우일 요셉
331-8888, 8899
덕천역 9번출구 파리바게트 건물 6층

슬림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비만 면역(기능의학)
원장 | 전문의 장정미
052-700-9114

인산죽염 부산지사(동래)

대표 김기룡(야고버)
죽염·유황오리진액·호두액·친환경
557-5553 동래 대동병원 맞은편
대리점, 취급점 모집

성신익스프레스(영구이사)

이사전문, 청소상담, 기업이사
어려운 이웃돌봄(무료이사상담)
대표: 김명수 대건안드레아
대표번호 010-8521-2488

속편한내과의원

조성락, 김주호, 김진도, 임성엽
허정호, 한서룡, 이정현, 장형하, 정재원
검진에서 진단, 치료까지 꼼꼼한 건강체크
동래역 1호선 1번출구 554-1088

길맥흉부외과

하지정맥류 중점클리닉
레이저, 고주파, 모카, 발거술, 정맥절제술
원장 박동욱 안드레아 754-9975
해운대 센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힐데갈드화장품

투스프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크림, 샴푸, 스킨, 비누, 로션
문의 010-5117-1160

부산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모집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살고자 하는 이들을 환대 / 문자문의: 010-2783-4532

포콜라레 영성 피정

· 2.28(토) 14:00~18:00 (17:00미사)
13:30부터 접수 / 회비: 1만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관 3층 강당
대상: 18세 이상 성인 남녀 누구나
현장에서 신청가능(별도의 사전 신청 없음)
문의: (053)651-2739

성녀 예수의 데레사 묵상기도학교

개강: 3.9(월) / 매월 2,4주 월요일
오전반 10:00 오후반 16:30 (2년 과정)
대상: 주님과 우정 어린 사랑을 갈망하는 신자
문의: 865-7334, 010-2466-2989
(전교가르멜수녀회)

예수성심전교남녀수도회 사순 피정

· 3.28(토)~29(일) · 부산 예수성심전교수녀원
대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 / 회비: 3만원
신청: 010-2817-3101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대상: 성인, 청소년 (비신자포함)
내용: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성장 등
상담사: 홍영미 수녀(심리학박사, 가톨릭상담사1급)
상담: 010-4539-3101(화~토 10:00~17:00)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피정

· 매월 마지막주 토 14:00~일 14:00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 1박2일(3식)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셔틀버스 운행(조치원역,청주고속버스터미널)

교우업체 소개란(6~7면 하단) 접수

- ▶ **게재 기간** 2026년 4, 5, 6월 (3개월)
- ▶ **금 액** 1회 8만원 (기본 3회 24만원)
- ▶ **접 수** 3월 1일(일)부터 선착순 / 이메일(jubo@catb.kr) 혹은 팩스(629-8756)
- ▶ **서 류** 교적사본(본인) 혹은 본당신부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 ▶ **신청서 다운로드** 교구 홈페이지 하단 - 참가신청 - '교우업체신청서' 클릭
- ▶ **문 의** 051-629-8751

성 베네딕도회 성소모임

· 매월 둘째주 토 16:00~일 13:00
·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문의: 오승운 수사 010-9643-2135(문자문의)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제주 순례: 2.27~3.1, 3.27~29, 5.9~11, 5.15~17, 6.19~21
추자도 성지순례: 3.5~8, 3.12~14, 3.18~21
5.3~6, 5.29~6.1, 6.4~7, 6.12~14
· 면형의 집 / 문의: (064)732-4702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치유세미나

· 4.17(금) 11:00~18(토) 16:00
·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회비: 9만원
대상: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내용: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
과 안수 / 문의: 010-5490-5345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 3.6(금)~14(토), 4.17(금)~25(토)
문의: 010-3340-0201(황성도미니코피정의집)

예수고난회 다네이 글방

하느님을 향한 매달 한권의 책읽기와 글쓰기
· 3월~6월, 매달 둘째/넷째 화 20:00~22:00
(비대면, 3만원) / 문의: 010-9503-1127

2026년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이
신청: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365일 신청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진동가르멜수도원 피정의집 직원 구함

주방자매님 / 숙식가능, 이력서 지참
문의: 010-8583-2625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쉼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문의: (064)796-4182, (02)773-1455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3월사순시기 제주성지순례와 올레길, 자연순례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3.1~4, 12~14, 29~31
차귀도 올레길포함: 3.7~9, 16~18, 26~28
엠마오 떠나는 4월: 6~8, 7~9, 11~14(추자도포함), 16~18, 20~22, 24~26, 28~30(추자도포함)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우편)
추가모집: 3.31(화)까지 원서 접수
문의: (02)745-8339, ci.catholic.or.kr

자비와 회복학교(온라인) 2026년 1학기 모집 안내

· 3.12~6.25 매주 목 21:30~22:30(16주)
회비: 1학기 과정 15만원 / 지도: 김태광 신부
문의: 010-8911-5957, mercyschool.kr

대구가톨릭대학교 4년제 온라인중심학과 신입생 모집

학과: 경찰탐정, 복지서비스, 부동산경영, 상담심리, 창업경영 / 국가장학금 대상자 (소득 8분위 이내) 등록금 전액 지원
문의: (053)850-2849, 010-8560-5814

2026년 간 김에 순례(성지순례) 프로그램

유럽 수도원 및 성지(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
문의: 010-5577-3605, 홈페이지 배너 참조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분도출판사)

그리스도의례지우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1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4박15일
7월: 캐나다 성모성지 9박10일
11월: 멕시코&칸쿤 성모성지 10박11일
문의: 010-5735-4578



부산성모병원

환자가 추천하는 명의.

소아청소년과 황윤하 전문의

**"5살 아이의 눈물부터
22살 청년의 미소까지,
17년의 따뜻한 동행"**



카카오
예약



네이버
예약

진료예약 : 051-933-7777

다섯 살때부터 벌써 17년이 넘는 세월동안
과장님께 꾸준히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몸의 아픔뿐 아니라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서 언제나 따뜻하게 보살펴주셨습니다.
<환자분이 보내준 '고백의 소리' 사연>

김 우 재 내 과 의 원 위/대장내시경, 국가검진, 초음파 내과전문의 김우재(파라셀)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여진 일광신도시 724-5888	산티아고 순례전문 투어 인생에서 한번쯤 걷고 싶은 산티아고 길 프랑스길,프리미티보길,북쪽길 40일,15일 밴차량,한국인 전문인솔자 전체일정 동행 산티아고 순례전문 투어 064-725-2971	독 일 보 청 기 청력검사, 난청유형별 맞춤 보청기, 정부지원보조금상담, 교우특별할인 방(가브리엘) 송(아가다) 555-5777 동래구 충렬대로229 수안역 7번출구	도 시 농 부 부산시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 안내 자부담금 20% 나만의 텃밭 만들기 마당이나 옥상보유한 개인이나 단체 신청중(아우구스티노) 010-2851-9956
바 루 내 과 의 원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소화기질환 고혈압, 당뇨,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문재현,이재형,박기태(베드로) 온천장SK허브올리브 3층 558-5608	사회복지법인 성요셉의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 1~5등급 입소상담 055-365-1910 원장 김희정(리오바)	골프존파크 동래안락스크린점 골프존파크투비전NX 24시간 오픈 무인관제시스템운영(23:00~08:30) 전병관 아킬레오, 김미경 베로니카 521-6266 (동래안락스크린점)	봉생힐링병원(감만동) 회복기재활센터(420평, 로봇재활) 혈액투석센터(전문의, Baxter) 암재활센터(통합암케어, 항암식단) 김남희(보나) 668-6000(서틀은행)